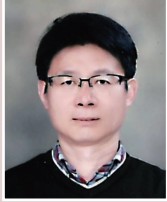


## 無爲無不爲(억지스러움이 없다)

KICEM



김용표 삼성물산 Civil사업부 수석

국내건설기업의 순이익이 2007년 6.4%에서 2015년 1.2%로 감소 하였으며(대한건설협회 통계), 건설업의 생산성은 20년간 정체되어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17년2월28일 건설업 혁신보고서). 또한 건설산업 환산 재해율은 2012년 0.43%에서 2016년 0.57%로 증가되었다. 건설업관련 지표들은 하나같이 암울한 수치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기술자 누구나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생존과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이 우리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연구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산업의 현실은 건설기술의 발달, 3차산업혁명의 디지털기술 접목과 고도화된 사업관리시스템의 도입, 정보통신의 엄청난 발달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수익개선과 생산성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사고와 안전사고를 근절하여 건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져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화되고 추가되었던 많은 기준, 규정, 지침, 점검의 실효성도 회의적이다.

이러한 취약한 건설산업의 구조하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양하면서 혁신적인 건설산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창조적 파괴는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업의 특성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어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랜 시간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설산업의 생존을 위해 최우선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획일적 기술자 평가방식에 따른 기술자 역량의 문제와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강화된 기준, 규정, 지침,규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본다.

“건설산업은 다양한 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의 특성에 민감하며 예측생산이 불가능하여 기업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생산활동이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자연환경에 영향이 많다. 생산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대상은 특수성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주문 생산, 단품생산에 의존하므로 제조업처럼 표준화가 어렵다. 같은 용도, 같은규모, 같은구조의 건설물이라도 건설장소, 환경 및 계절여건에 따라 시공방법, 공사비가 다르게 나타나 원가산정의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건설산업의 특성을 정의한다.

이와같은 생산방식의 다양성 과 생산물의 유일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유연성, 개방성과 함께 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기술자의 육성이 건설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들이 인재로 육성되고 성장하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기술자의 판단기준이 올바르게 정의되어야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문성과 유능함의 합리적 역량판단 기준은 올바른 인재육성의 핵심이며 건설산업 개혁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 현실은 현재 기술자 역량 평가방식은 지극히 단순하다. 경험, 자격, 학력에 따라 자동으로 기술자가 평가 되어진다. 기술사가 있거나 박사가 되면 그 자체로 검

중이 마무리되어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지금처럼 등급별 기술자 역량요소가 없고 실증적 분석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장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노력과 성과창출로 자신의 유능함을 인정받으려는 노력보다 자격증 과 학위취득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건설산업의 수익창출의 근간인 현장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방식이 이론과 경험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설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장의 실천적 경험과 성과창출에 대한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가방식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자격증과 학위가 전문성과 유능함 판단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지만 이것이 판단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역량은 성과라는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건설산업을 경험산업이라 하며 경험을 무척 중요시 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공사의 일정기간의 경험이 없으면 키맨이 될 수 없으며 오랜경험은 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다보니 동일공종의 오랜경험이 장점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의 판단 기준이 단순히 항만공사, 철도공사, 댐 공사, 정수장 공사, 해외공사, 공무경험을 몇 년 해봤느냐는 지극히 정량적인 방식으로 그사람의 경험을 역량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경험이라는 분야는 상당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인지 아닌지 실패한 경험인지, 경험이 자신만의 기준이나 한계로 규정하고 새롭음 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아니면 성찰과 고민으로 경험을 밟고 뛰어넘어 또 다른 창조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 경험은 독이 될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결과와 실적의 검증이 없는 경험의 맹목적인 신뢰가 건설산업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공종의 오랜경험이 다양한 경험의 접목을 통한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기술자 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평가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평가기준 수립의 모호함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성과와 연계된 역량평가 방식의 도입, 기술자 등급에 따른 역량요소의 설정과 실증적 분석기준의 수립 및 경험의 맹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직무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 방식의 도입등 올바른 기술자 역량평가를 위한 연구와 적극적인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건설산업은 그 성장과정에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실공사, 정경유착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토건족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함께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사회의 건설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부분에 더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중대한 기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규제와 기준을 강화하고 지침을 추가하고, 검토 승인 단계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 지속적인 통제강화 위주의 대책수립은 건설기술자들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책임전가를 잘하는게 현명한 생존방식이 되고 말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조직문화의 경직을 가져왔으며 기술자들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은 어리석은 노력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술자들의 많은 불만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면서 까지 강화된 통제가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품질사고, 기술사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건설산업의 산업재해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기술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기술자의 문제로만 몰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시방, 지침, 기준, 규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정책방향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점검, 현장감 없는 지도 및 지시, 적용이 어려운 정도의 지나치게 강한 기준,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복지부동, 너무 많은 다양한 검토단계의 증가로 인한 결정지연, 이러한 환경에서의 건설기술자의 창의성과 열정의 소멸이 기술사고 안전사고를 불러온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본다.

지나친 기준은 완화하고 사고때마다 강화되었던 규제도 현실적으로 정리하며 책임회피식 검토단계도 과감히 간소화 하여야 한다. 규정 과 기준도 현실성과 현장 적용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시방기준의 이론적 배경이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면 당연히 현장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지속적인 점검지적과 많은 제재에도 콘크리트 균열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재료특성상의 균열과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균열에 대해 별개의 관리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여야 하며, 터널이 붕괴되면 터널내 작업자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데 락볼트 시공은 왜 그렇게 많이 누락되는지 단지 기술자들의 부도덕한 면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느끼는 설계와 시공의 괴리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 방안으

로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신과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무한히 넓혔듯이 우리산업이 그동안 진리처럼 믿었던 많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창조적 파괴의 혁신이 필요하다. 창의적이며 열정있는 기술자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과 규제의 완화와 통제만을 위한 억지스러운 규정의 철폐가 이루어져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융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주체적 실천자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글을 적어본다.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배운다는 것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요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덜어내어 무위에 도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없다.

노자는 지금 우리에게 건설산업의 혁신은 더하는 것을 그만두고 빼기의 지혜와 억지스러움을 없애는 無爲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